

게임업계, 체질개선에 성과 갈려... 넥슨 '역대급' 실적 예고

차주부터 지난해 실적 발표 대표기업 '3N' 전망 엇갈려 "대부분 게임사 위기 직면"

국내 게임업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오는 8일 엔씨소프트와 넥슨을 시작으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의 실적에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린다.

넥슨은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지만 엔씨소프트는 한 번 더 부진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대부분의 게임사들도 우울한 성적표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업을 대표하는 3N인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은 설 전날인 8일부터 엔씨와 넥슨을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넷마블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8일 카카오게임즈, 15일 펠어비스 등의 순으로 실적을 공시한다.

이 가운데 3N의 실적에 희비가 갈릴



넥슨사옥 전경

/넥슨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4분기 매출이 879억~962억엔(약 7934억~8683억원), 영업이익은 114억~178억엔(약 1029억~16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9% 늘고, 영업이익은 4~62% 증가할 수 있다.

데이브 더 다이버,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온라인 등 기존 게임의 꾸준한 성장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이에 넥슨이 연매출 4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영업이익은 1조3855억원이 예상된다.

넷마블은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넷마블이 작년 4분기에 매출 6578억원, 영업이익 4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9월 출시한 신의 탐, 세븐나이즈키우기의 흥행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스톤에이지 IP활용 게임이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경

우 약 69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엔씨소프트는 다소 우울한 성적표를 받을 전망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엔씨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4%, 72.4% 감소한 4414억원, 131억원이다.

리니지 IP게임 매출이 감소하면서 '탈리니지'를 목표로했던 엔씨가 지난해 야심차게 선보인 'TL(쓰론 앤 리버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TL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적도 큰 폭의 감소가 예측된다.

2K(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중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369억원, 763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9.7%, 56.6% 감소했다. 지난해 선보인 아키에이지와 아레스가 흥행을 거두지 못하면서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1조8114억원, 영업이익 713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2.3%, 5.0%씩 줄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IP(지식재산)의 글로벌 흥행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밖에 중견게임사인 위메이드, 컴투스 등도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교보증권의 김동우 연구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역성장과 시장 구성 변화가 겹치면서 2023년은 국내 상장 게임사 대다수가 가파른 영업이익 감소를 겪을 것"이라며 "2024년에는 이 같은 부정적 기저가 완화되고, 장르 및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 턴어라운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위기를 감지한 게임사들도 올해 실적 반등을 위해 상·하반기 전략을 세우는 분위기다. 상반기에는 인건비 감소, 게임서비스 종료, 신기술 개발 등 전사적인 경영에 무게를 두고, 하반기 신작 출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실적이 밝지 않은 가운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는 긴축경영을 하면서 게임사 본연의 역할인 신작출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게임업계 신작·이벤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람다 파트너사 선정

동물대체솔루션 플랫폼 연구 협력 하반기에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계획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유럽 바이오테크계의 거물'로 꼽히는 안드레 거스 대표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동물대체시험 플랫폼 람다(Lambda Biologics GmbH)의 첫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동물대체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람다를 창업한 안드레 거스 대표는 유럽 최초의 세포 은행이자 세계 3위 규모인 비타34(Vita34)의 회장직을 포함해 바이오테크 계에서 10여 건이 넘는 인수합병(M&A)을 성사한 업계의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람다는 다



양한 동물대체시험법을 필요한 연구자나 업체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며, 양자 간 기술 교류를 넘어 연구 데이터베이스 개발, 고객 경험 위주의 마케팅 및 영업 개발 및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스 대표는 한국 업체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대해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평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점이 돋보인다"라며 "건강 기능식품 분야와 화장품 분야에서 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점 등 오가노이드

의 확장성을 시도하는 점이나, ISO 9004 인증을 받고 재생 치료제 임상 투여를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품질의 오가노이드 기술을 보유한 점"을 협력의 이유로 밝혔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사진)는 "앞으로 비임상 시험을 시행하는 기업들과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은 증가할 것"이라며 "람다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럽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독일 라이프치히에 본사를 두고 오는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이템매니아 "출석하고 세뱃돈 챙기세요"

'설레는 매니아 즐기기' 기획

아이엠아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가 설 명절을 맞아 '설레는 매니아 즐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하여 약 2주간 진행된다. 어릴 적 설 명절을 가장 설레게 했던 것은 바로 세뱃돈. 아이템매니아는 회원들이 설 연휴 동안 게임도 즐기고 어릴 적 세뱃돈 모으기 추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해당 세뱃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이벤트 기간 동안 아이템 매니아를 3일 연속 출석하거나 3만원

이상 구매를 3번 완료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

세뱃돈과 함께 물렛돌리기 기회도 각각 한번씩 주어진다. 해당 톨레에는 최대 1000원의 세뱃돈 당첨 기회와 '짱' 또는 '출석초기화'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불복의 아슬아슬한 재미까지 더했다.

이용자들은 이벤트를 통해 획득한 세뱃돈으로 할인쿠폰, 물품 강조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아이템 거래 쿠폰을 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주,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권도 세뱃돈으로 구매 가능하므로 새해에 대한 궁금증을 재미있게 운세로 풀어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빌보드 파워 100' 선정

방시혁하이브의장(사진)과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가 '2024 빌보드 파워 100'에 선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는 기업을 번영시키고 업계를 혁신한 음악 업계 40인의 리더를 꼽는 '리더보드' 부문 18위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방 의장은 2020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네 번째 파워리스트에 선정됐다.

/최빛나 기자

미샤, 엘리자베스 올슨 인터뷰 공개

'나이트리퍼어 앰플 5X' 후기 전해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브랜드 앰버서더인 헐리우드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미샤는 '엘리자베스 올슨'의 새로운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서 엘리자베스 올슨은 보랏빛 앰플로 알려진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리퍼어 앰플 5X'의 실제 사용 후기를 전한다. 엘리자베스 올슨의 인터뷰 영상은 미샤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미샤는 보랏빛 앰플을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올슨과 '뷰티 이즈 리얼리티'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뷰티 이즈 리얼리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연출되거나 꾸며지는 것이 아닌 본질 그 자체에 있다는 의미다. 미샤는 불필요함을 덜어낸 효능 중심의 합리적인 브랜드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미샤는 지난 2023년 엘리자베스 올슨과 해당 캠페인을 진행해 '비타씨플러스 잡티씨 탄력 앰플'과 '개똥썩 진정 앰플'의 매출을 전년 대비 각각 39%, 223% 올린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프로스트핑크' 모바일판 얼리 액세스

컴투스 미·영·필리핀서 서비스

컴투스의 모바일 명작 생존 게임 '프로스트핑크: 비온드 더 아이스'가 미국, 영국, 필리핀 3개 지역에서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컴투스는 '프로스트핑크: 비온드 더 아이스'를 주요 시장인 미국, 영국, 필리핀 등 3개국에 얼리 액세스 형태로 선보이고, 도시 경영 및 생존 게임 코어 유저층으로부터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 글로벌 정식 출시까지 적극적으로 게임에 반영할 계획이다.

'프로스트핑크: 비온드 더 아이스'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기록한 명작 생존 게임 '프로스트핑크'의 모바일 버전이다.



'프로스트핑크 비온드 더 아이스' 대표 이미지 /컴투스

모바일 버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를 직접 극복할 수 있는 미니 게임 콘텐츠인 '웨더 스테이션'과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투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탐험'이 있다. 이 밖에도 교역 시스템과 동물 구조 센터 등 새로운 콘텐츠도 마련돼 있다. /최빛나 기자